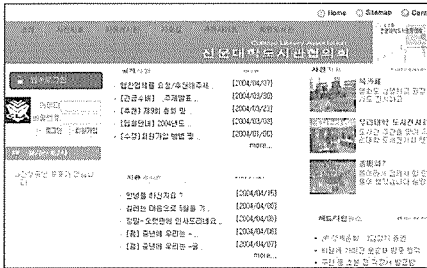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서 배 원_회계



(http://www.clib.or.kr)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전대도협)는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인들의 자질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에 전문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짧은 역사이지만 지난 2003년에는 전체 159개 전문대학 중 77개 전문대학이 회원대학으로 가입하였으며 사서들의 관심과 참여로 꾸준히 그 회원교가 증가하고 있다.

전대도협에서는 매년 5월에 정기총회와 함께 사서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관심분야와 현안들에 대해 현직사서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clib.or.kr)를 통해 전문대학 사서들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을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 조직으로는 아래와 같이 회장교(회장 혜천대학 김성진 과장), 부회장교, 총무교, 회계교, 각 지역별 지회장교, 감사교, 자문교를 두고 있다.

구 분	대 학 명 /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회 장 교	혜 천 대 학	042) 580-6060	
부회장교	동명정보 : 최송락	051) 620-3361	
총 무 교	인덕대학 : 이종원	02) 901-7535	
회 계 교	용인송담대학 : 서배원	031) 330-9161	
이사교 겸 지회장교	경인강원제주지회장교	서일대학 : 김재국	02) 490-7371
	중부지회장교	백석대학 : 공민용	041) 620-9662
	호남지회장교	익산대학 : 구진희	063) 850-0592
	영남지회장교	거제대학 : 주호성	055) 680-1557
감 사 교	두원공과대학 : 최병훈	031) 670-7087	
자 문 교	오산대학 : 이미영	031) 370-2593	
	동남보건대학 : 김종찬	031) 2496-322	

중점사업으로는 사서직무교육의 내실화, 회원도서관 확대, 각 지회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지원,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강화, 공로자 포상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수의 감소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문대학의 현실에서 학생교육과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의 애로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대도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각 협의체간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서관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문 의 : 용인송담대학도서관 서배원 회계, 전화 : 031-330-9161, E-mail : bwseo@ysc.ac.kr, 주소 : (449-710) 용인시 마평동 571-1 용인송담대학도서관]

도서관분야 NGO에 찾아서

신규장각 :

디지털 융합시대, 지식문화운동을 추구한다!

이 계 정 _ 간사

디지털 시대, 지식정보화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등. 소위 새로운 시대를 지칭하는 수식어들이 이제 낯설지만은 않다. IT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미래는 과연 그 기술의 진보만큼이나 찬란할 것인가. 대답은 미지수다. '지식' 없는 지식기반사회와 '정보' 없는 정보의 바다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야할 때다.

신규장각 운동은 1996년 『디지털은 자본이다 : 디지털시대와 정보민주주의』 우병현, 나남출판사)를 통해 처음 제안된 지식인 프라 구축운동이다. 정보사회의 발전에 걸맞는 지식인프라 구축과 지식마인드 확산을 목표로 삼고 1996년 '디지털신규장각', 1998년 '콘텐츠미디어 연구소'를 거쳐 2003년 신규장각으로 발족된 것이다. 다음 카페에서 임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른 신규장각은 다섯 차례의 포럼을 통해 그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지식인프라의 기본이 될 도서관상을 연구, 실질 도서관 건립을 위해 관련 분야를 통합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신규장각의 연구분과로서 '미래도서관 연구포럼'(前신규장각포럼)을 개최하고 정보통신,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인접분야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이용훈 기획부장의 발표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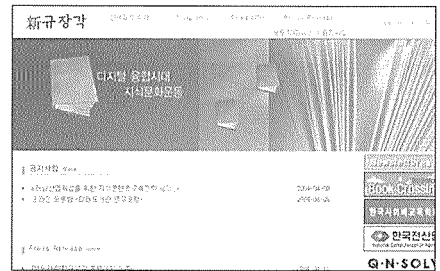
둘째,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지식마인드를 확산시킨다. 요즘 어린이들의 놀이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컴퓨터다. 뿐만아니라 학교 과제물까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검색하고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법이나 인터넷 학습 등의 정보교육이 활발하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된 지식정보의 활용 및 생산에 대한 교육은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방학을 이용해 '어린이 정보달인 캠프'를 운영,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도서관의 기반 플랫폼으로써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을 연구, 사회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한다. 신규장각의 또하나의 연구분과로서 네이버카페를 통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운영 중인 융합포럼(<http://cafe.naver.com/cvf>)은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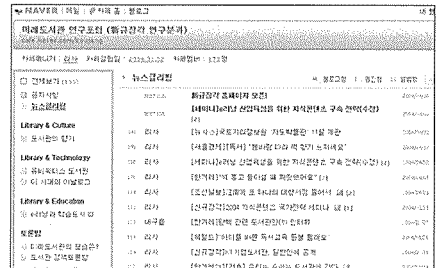
현재 신규장각은 사단법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으며, 홈페이지(www.kyujang.org)도 운영, 뉴스레터 서비스를 중심으로 회원들을 확보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kyujang>)에서는 온라인 토론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이계정 간사, 전화 : 011-9429-4247, E-mail : kjmylove@empal.com】



(<http://www.kyujang.org>)



(<http://cafe.naver.com/kyujang>)